

與野, 적대 공존으로 비호감만 쌓았다… 지지율 답보 상태

한동훈, 대통령과 갈등 공개 노출
이재명, 사법리스크·당 내 갈등

부동층 20%… 중도층 외연확장 안 돼
연휴 이후 공천 문제로 파열음 예상

정치권이 적대적으로 공존하면서 쌓아온 '거대 양당 비호감'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당 대표가 각각 이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답보 상태에 빠졌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자,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586 운동권을 청산해야 한다"며 당의 전권을 잡았으나,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로 대통령과 갈등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며 위태위태한 행보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전후부터 제기된 성남FC 후원금·성남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탈당 등 당 내 통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또한 거대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약이나 외부 인재 영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갈등과 다툼이 더 조명되면서 쉽사리 한 정당을 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제3지대 정당 논의도 뜨겁지만, 이합집산만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 설 연휴 전에도 서로 이념적으로 가까운 정당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리 중텐트만 쳤을 뿐, 모든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하는 빅테트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두 정당의 지지율은 30% 중후반대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며 횡보하고 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으로 조사한 정례 여론조사(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면접 100%, 표준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 응답률 12.5%)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이 36%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 었다. 녹색정의당은 2%로 나타났고 기타 정당도 7% 지지도를 보였다.

특히 지지 정당 없음 16%, 모름 또는 무응답은 2%로 부동층은 20%의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도를 한달 전 실시한 같은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3% 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문가는 거대 양당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중도층까지 외연 확장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치권 설립 업체 관계자는 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문제가 걸려 있다. 여당은 김건희 리스크, 야당은 사법리스크가 걸쳐 있어서 지난 대선처럼 비호감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지층들은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

했다.

그러면서 "중도층이 지금 선택지가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의 경우 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완벽하게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위원장을 토대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다가 지지층이 결집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정도"라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선 다 그냥 고만고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양당의 공천 작업에서, 국민의힘은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공천 논란으로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이 대표 측근이 친문재인계나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공천될 가능성이 있어서 파열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선거 초반이라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양당이 원칙에 의한 시스템 공천이라기보다 사사롭게 연결되는 과정이 나타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한동훈, “尹 갈등?… 서로 의견 설명·소통할 수 있는 관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김 여사 몰카 공작에 얽려 부분 있어
김경율 사천 논란, 외압 없음 강조
차기 대선 질문에 “총선 이후 생각 안 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권 도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실과의 갈등에 대해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고, 서로 의견을 갖고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되는 것”이라면서 “한쪽의 생각이 무조건 지배하는 관계가 안 좋은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과 굉장히 오래된 사이다. 여러 가지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연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는 굉장히 공적 지위에서 서로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개인적 관계는 길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저와 그분이 신뢰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 주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과의 갈등의 원인이 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다”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선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처음부터 그 가방을 사서 그림을 찍기 위해 산 것”이라며 “이 사안의 본질은 몰카 공작인 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친북적인 사람이 공격적인 의도로 했다는 게 너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김경율 사천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한 달도 안돼서 집권여당을 사당화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분을 찾아 모셔오고 싶다. 정치의 신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사전사당화 논란도 있었다. 그런 문제는 저는 나을 얘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과정에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감수할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 공천을 물대로 할 것이고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비대위원의 불출마에 대해 “본인의 뜻을 제가 존중하는 것이고 김 비대위원은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히, 외압은 없었음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대권 도전과 관련해 총선 결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고 기회가 되면 차기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4·10 이후 제 인생이 정말 꼬이지 않겠나. 이기든 지든, 저는 그것을 알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그만큼 총선에 집중할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정말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尹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우선 지원할 것”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 마련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찾아 “올해 시급한 난방비,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북구의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며 건강과 안부를 묻고 난방은 잘되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 등 꼼꼼히 살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날 방문에 대해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이 민생현장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미등록 경로당 이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는 약 6만8000개의 경로당이 등록돼 있으며, 약 250만명의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7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환담하고 있다.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설요건, 이용 정원 등 일부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해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도 지난 1월 16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경로당은 약 7.6평 정도의 크기에 내부에 화장실이 없고 이용 어르신 인원이 기준인 2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에 김해 출마 요청

서병수 의원, 부산 출마 요청 수락

국민의힘이 서병수·김태호 의원에 이어 조해진 의원에게 경남 김해 출마를 요청하면서, 영남권 중진을 향한 ‘릴레이 차출’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서병수 의원은 7일 당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4·10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갑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조해진 의원(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게 현 지역구를 떠나 경남 김해갑 혹은 김해을에 출마해줄 것으로 부탁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해진 의원에게 김해갑이나 김해을로 가서 당을 위해 헌신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김해갑과 김해을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민홍철·김정호 의원의 지역

구로,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각각 3선, 재선에 성공했다.

앞서 공관위가 서병수(5선·부산부산진갑)·김태호(3선·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에게 부산 북강서갑과 경남 양산을 출마를 요청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부산 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와 경남 김해시·양산시 등을 아우르는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 탈환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거기 상대적으로 ‘양지’인 지역구에 여권 정치 신인이 나서게 하고,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낙동강 벨트’에 차출하게 되면 PK(부산·경남) 선거 판세 변화와 ‘교통 정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당의 요청에 화답한 것은 서병수 의원 뿐이다.

/서예진 기자